

## 음주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 쾌락적 소비의 개념 적용과 식도락 추구의 조절효과 탐색

권혁인<sup>1</sup> · 윤홍권<sup>2</sup>

<sup>1</sup>중앙대학교 교수 · <sup>2</sup>중앙대학교 박사과정

###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Hedonic Consump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ulinary Pursu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ation and Drinking Enjoyment

Kwon, Hyeog-In<sup>1</sup> · Yoon, Hong-Gwon<sup>2</sup>

<sup>1</sup>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sup>2</sup>Chung-Ang University, PH.D. Studen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enjoyment including the concept of consumption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ulinary pursuit in relation to drinking motivation and drinking enjoyment. Therefore, alcohol drinking motivation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stress and perceived drinking control factors as control variables, and drinking enjoyment factor as a dependent variable were set.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goal, we collected data from 261 adults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ata and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ping motivation and social motivation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drinking enjoyment even though stress and alcohol control factors were controlled. Second, culinary pursu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ation and drinking pleasure.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nhancement motivation and drinking enjoy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ursuit of culinary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ation and drinking enjoyment.

**Key words :** drinking motivation, drinking enjoyment, culinary pursuit, moderating effect

주요어 : 음주동기, 음주참여, 식도락 추구, 조절효과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Hong-Gwon

Chungang University, Heukseok-ro 84, Dongjak-gu, Seoul, Korea

Tel: +82-02-820-6965, E-mail: shsy3247@naver.com

Received: January, 9, 2020 Revised: March, 11, 2020 Accepted: March, 21, 202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 여가는 쾌락과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여가에서 음주는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통한 쾌락 추구에 크게 개입되어 왔다(오재환, 2002). 여가는 쾌락, 보람, 만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오락, 여유 및 휴식, 취미활동으로 정의 되는데(여가문화연구회, 1997), 음주는 이와 같은 여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급문화(미술, 소설, 오페라, 철학)의 소비는 반드시 평범한 문화(의류, 음식, 술, 여가추구)와 함께 소비되며(Featherstone, 1990), 때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 보다 스포츠 여가 참여 빈도가 높다는 점(Kunz, 1997)에서 여가와 음주문화는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다.

술은 현대인의 생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전환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다(Mandelbaum, 1965; Sulkunen, 2002). 대한보건협회(2016)의 국내 음주자료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가계지출 대비 주류지출 비율이 매년 증대되어 왔으며('15년 기준 37%), 성인 기준 85%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술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송성인, 2017).

사람들이 음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음주동기'로 칭하며 이에 대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Farber, Khavari, & Douglass, 1980; Cooper, Russell & Skinner, 1992; Cooper, 1994). Cooper(1994)는 Cox, Klinger(1989)가 제시한 개념 모형을 기초로 하여 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한 고양동기,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대처동기, 사회적 사건이나 축하

모임을 즐기기 위한 사교동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동조동기를 4개의 음주동기 모델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음주동기가 다양하게 연구되며 세분화되어 왔으나, 우리사회는 술을 음식으로 고려하지 못하여 왔다. 류정일(2010)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식은 자연을 문화로 가공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화를 바탕으로 음식으로서의 술과 맛있는 음식이 함께 언급되어 왔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은 곡물 또는 과실로 만들어지는 분명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술은 음식으로서의 속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음주문화는 음식문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음식문화와 깊이 관련되는 외식은 가정 외 음식점 식사 또는 가정 내 주문에 의한 식사로 정의되고 있다(조문수, 2003). 이와 같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외식 참여와 음주참여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대체로 서로 간에 공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외식동기는 음주동기와 유사하게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외식동기는 배고픔, 편리성, 효율성 추구는 목표지향, 위락적, 신기성 추구는 행복지향으로 실용과 쾌락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Batra & Ahtola, 1991).

쾌락적 소비는 제품에 대한 다중 감각, 판타지 및 감성적 측면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의 측면으로 정의되며(Hirschman & Holbrook, 1982), 제품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의미와 해석의 측면을 고려하는데(Noarman, 2004), 이는 외식의 위락성, 신기성을 추구하는 행복지향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음식과 술이 쾌락적 소비의 개념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쾌락적 소비 행동은 제품 구매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감정적 기대에 의해 강하게 일어 날 수 있다는 점(Wilson and klaaren, 1992)에서 음식과 술에

대한 동기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쾌락적 소비행동으로써 음주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음주문화가 여가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취하는 도구로써만 고려하고 있을 뿐 술을 음식으로 고려하는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부족하며, 뿐만 아니라 음주참여가 쾌락적 소비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참여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소비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oper(1994)가 제안한 음주동기를 활용하여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음주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 통제되어야 할 요인을 고려하고, 더불어 외식동기의 세부 요인인 식도락 추구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 1) 음주동기와 음주참여 관계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Cooper(1994)는 4가지 음주동기가 인종,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음주참여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민규(1993)는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경민, 이민규(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동기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대수, 이재훈(2013)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동조동기와 사교동기가 음주참여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음주동기는 음주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동기좌절 인지와 예측되는 동기좌절 상황인지로 정의되는데(Cohen, Kamarck and Mermelstein, 1983), 이는 음주참여에 정(+)<sup>2)</sup>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영, 박정범, 손애리, 2010). 반대로 지각된 음주통제

요인은 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정도로 정의 되는데(White and Labouvie, 1989), 이는 음주행동에 부(-)<sup>3)</sup>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Huchting, Lac & LaBrie,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음주통제를 통제된 상태에서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을 [가설 1]과 같다.

[가설 1] 음주동기는 음주참여에 정(+)<sup>4)</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1:고양동기, H2:대처동기, H3:사교동기).

### 2) 외식동기와 음주동기, 음주참여와의 관계

외식동기는 외식행위 그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외식행위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각각 내재적,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고 있다(조문수, 이성은, 이영란 2008). 특히 내재적 동기는 행위자체가 목적인 식도락성이나 편의성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쾌락적 각성수준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보다 행동을 이끌어 냄에 있어 우세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0). 따라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음주동기와 식도락 추구 인식은 음주참여를 강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식동기가 음주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Raymore, 2002), 두 동기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음주참여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설은 다음의 [가설 2]와 같다.

[가설 2] 식도락 추구는 음주동기와 음주참여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H4:고양동기, H5:대처동기, H6:사교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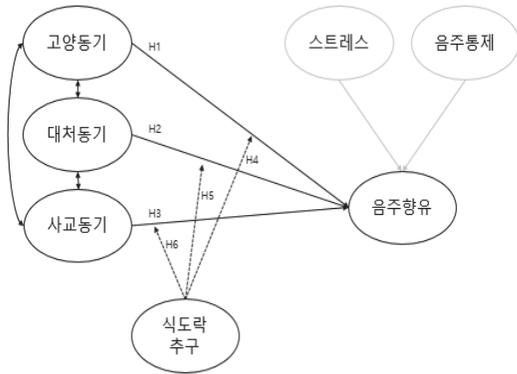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 모형은 위의 <그림 1>과 같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15년 기준 가장 높은 음주비율을 보이는 20대(89.2%)와 30대(83.2%)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대한보건협회, 2016). 직장인과 대학생 등 다양한 집단군 자료 수집을 위해 SNS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의 2개 대학과 천안의 1개 대학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한 후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26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두 성실히 응답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261개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위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중 남자가 116명(44.4%), 여자가 145명(55.6%)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16	44.4
	여자	145	55.6
학력	고졸	6	2.3
	전문대졸	25	9.6
	대학교졸	164	62.8
	대학원 이상	66	25.3
	연령	20대	145
30대		116	44.4
월수입	200만원미만	138	52.9
	200만원~250만원	73	28.0
	251만원~300만원	31	11.9
	301만원이상	19	7.2
거주지	수도권	164	62.8
	광역시/자치시	56	21.5
	기타시도	41	15.7

며, 학력은 대학교졸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230명, 88.1%). 연령은 20대가 145명(55.6%)으로 30대 116명(44.4%)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월수입의 분포는 200만원미만이 138명(52.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거주지는 수도권이 164명(6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2. 측정도구

음주참여자의 음주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 식도락 추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음주동기는 음주행동에 이르는 최종 공통 경로(Cox, Klinger, 1989)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도구로는 Cooper(1994)가 개발하고 Cox와 Klinger(1989)이 수정한 진단도구를 신행우, 한성열(1999)이 번안한 음주동기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진단도구는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조동기 요인은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동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하

고, 3개 요인 12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음주 동기 진단도구로 활용하였다. 문항은 음주에 참여하고 싶은 상황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정도를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음주참여 요인 구성에 있어서 알콜 소비와 음주참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보건협회(2016)는 음주자료 조사 통계에서 알콜 소비, 음주 관련 소비지출을 통계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음주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음주량, 음주속도, 음주빈도(김중운, 2007; 박경민, 이민규, 2005; 신행우, 1999)가 문항으로 고려되어 왔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참여 빈도, 음주량, 음주지출 3개 문항을 음주참여 요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오픈형 문항으로 연속 변수로 기입하게 요청하였으며, 측정된 문항은 Z점수로 표준화하여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는 분산을 보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식도락 추구 요인 측정을 위하여 외식동기의 식도락 추구 요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식도락 추구 인식 측정을 위하여 김홍범, 허창(1998)의 연구와 조문수 외(2008)의 연구의 식도락 추구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스트레스 요인은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은 최근 한 달간 느낀 스트레스 감정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단도구 14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3개 문항을 한국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음주 통제 요인은 Huchting, Lac & LaBrie(2008)이 보고한 특히 음주통제를 어렵게 하는 4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때 4개 문항 중 더 많은 술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음주를 자제하려는 신념과 관련 된다고 판단되는 3개 문항만을 선택하여 음주

통제 진단문항으로 활용하였다.

음주참여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SPSS,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문항의 내적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AMOS를 활용하여 측정 문항과 요인구조의 구조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검토를 위해 다중집단 모형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절변수는 K평균 군집화기법을 활용하여 식도락 상 집단과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4.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지수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교동기와 조절변수인 식도락 추구, 종속변수인 음주참여, 통제변수인 스트레스와 음주통제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Cronbach' 지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검토 결과 KMO 지수는 .893으로 나타났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chi^2=4595.694$ ,  $df=378$ ,  $p<.000$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적재치 검토 결과 7개 요인 24개 문항은 .6 이상의 요인 적재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MO>.8, 구형성 검사의 통계적 유의미성, 요인 적재치 .5 이상, 교차요인 적재치가 .4이하일 때 판별타당도 및 집중타당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최창호, 유연우, 2017), 본 연구의 요인 및 문항은 대체로 우수한 수준의 타당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고양동기의 '지루하거나 심심할 때' 문항은 교차 요인 적재치가 .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Cronbach'a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 .671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Churchill J, Surprenant, 1982).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모형 적합도 분석을 위해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인 CDMI/DF, TLI(NNFI), CFI, RMSEA(홍세희, 2000)를 검토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CMIN/DF=1.574, TLI=.954, CFI=.961, RMSEA=.047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 검토는 CMIN/DF는 3보다 작으면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Bollen, 1989), TLI와CFI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으며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강현철, 2013). 또한, RMSEA는 <.05=좋은 적합도, .05-.08=괜찮은 적합도, .08-.10=보통의 적합도, >.10=나쁜 적합도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Browne, Cudeck, 1993)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좋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Cronbach'a 지수 분석

구분	요인	문항내용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 a	
			Cop	Soi	Cul	Enh	Str	Con		Enj
고양 동기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356	.320	.094	<b>.649</b>	.016	-.172	.154	.831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205	.248	.005	<b>.717</b>	-.013	-.150	.165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176	.259	.070	<b>.804</b>	.040	-.105	.019	
독립 변수	대처 동기	고민이 있을 때	<b>.816</b>	.189	.171	.160	-.011	-.024	.103	.892
		기분이 울적할 때	<b>.849</b>	.204	.100	.158	.106	-.045	.137	
		슬플 때	<b>.848</b>	.115	.000	.245	.056	.009	.040	
사교 동기		화가 났을 때	<b>.744</b>	.145	-.022	.195	.115	-.110	.214	.927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167	<b>.803</b>	.062	.233	-.004	-.189	.189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181	<b>.769</b>	.149	.199	.021	-.190	.139	
종속 변수	음주 참여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182	<b>.866</b>	.132	.222	.057	-.128	.136	.671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217	<b>.834</b>	.102	.256	.049	-.128	.168	
		한달 평균 음주참여 빈도	.232	.148	-.010	.182	.023	-.172	<b>.696</b>	
조절 변수	추구	술자리 한번에 평균 알콜 소비	.164	.165	.081	-.053	-.101	-.143	<b>.685</b>	.861
		한달 평균 음주 지출 금액	.037	.154	-.044	.227	.084	.030	<b>.792</b>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은 중요하다.	.052	.002	<b>.774</b>	.068	.014	-.069	-.018	
통제 변수	스트 레스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긴다.	.040	-.007	<b>.887</b>	.030	.049	-.016	-.036	.835
		다양한 요리를 접하고 싶다.	.101	.142	<b>.864</b>	-.015	.067	.001	.055	
		지역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010	.232	<b>.800</b>	.043	.011	.088	.047	
음주 통제	음주 통제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통제 할 수 없다고 느꼈다.	.025	.005	.081	.027	<b>.873</b>	.028	-.026	.797
		나는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꼈다.	.138	.049	.104	-.032	<b>.856</b>	-.042	-.042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화가 났다.	.038	.029	-.052	.057	<b>.854</b>	.032	.071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한다.	-.091	-.185	.022	-.252	-.003	<b>.788</b>	-.147	
		나는 특정한 날에만 술을 마셔야겠다고 다짐했다.	.065	-.122	.026	-.108	.047	<b>.870</b>	.064	
		나는 스스로에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79	-.233	-.067	-.058	-.033	<b>.730</b>	-.320	

Kaiser-Meyer-Olki(KMO)=.89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4595.694 df=378, p<.000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요인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beta$	S.E.	t-value
독립변수	고양동기	고양동기1	0.855		
		고양동기2	0.719	0.067	12.195***
		고양동기4	0.733	0.066	12.472***
		대처동기1	0.824		
	대처동기	대처동기2	0.890	0.065	16.984***
		대처동기3	0.839	0.068	15.749***
		대처동기4	0.743	0.072	13.312***
		사교동기1	0.835		
	사교동기	사교동기2	0.794	0.064	15.437***
		사교동기3	0.938	0.053	20.363***
		사교동기4	0.930	0.056	20.087***
		음주빈도	0.751		
종속변수	음주참여	1회 주량	0.521	0.103	6.744***
		음주지출	0.642	0.110	7.788***
		식도락1	0.649		
조절변수	식도락 추구	식도락2	0.815	0.152	10.79***
		식도락3	0.877	0.149	11.229***
		식도락4	0.782	0.143	10.469***
		스트레스1	0.821		
통제변수	스트레스	스트레스2	0.798	0.079	11.972***
		스트레스3	0.758	0.080	11.675***
		음주통제1	0.845		
	음주통제	음주통제2	0.697	0.082	10.57***
		음주통제3	0.728	0.077	10.944***
CMIN/DF=1.574, TLI=.954, CFI=.961, RMSEA=.047					

\*\*\* $p < .001$

은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 문항과 잠재요인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은 .521 이상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계수가 .5 이상일 때 개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 자료는 연구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III. 결과

#### 1.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요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음주동기 3개 요인과 통제변수인 스트레스와 음주통제 요인의 상관관계 및 VIF를 검토하였다. VIF 수치는 각 요인의 대각의 Bold체로 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요인	1	2	3	4	5
1. 대처동기	<b>1.512</b>				
2. 고양동기	.549**	<b>1.964</b>			
3. 사교동기	.460**	.618**	<b>1.803</b>		
4. 스트레스	.161**	.075	.087	<b>1.029</b>	
5. 음주통제	-.221**	-.404**	-.437**	-.002	<b>1.288</b>

\*\* $p < .01$

고양동기와 사교동기의 상관관계가 .618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VIF값이 2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1998),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연구 가설 검증

##### 1) 가설 검증 및 직접 효과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CMIN/DF=2.558, TLI=.894, CFI=.908, RMSEA=.077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검증 결과 고양동기는 음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beta=.194, t=1.826$ ), H1은 기각되었다. 반면에 대처동기( $\beta=.232, t=2.192^*$ )와 사교동기( $\beta=.248, t=3.293^{***}$ )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2와 H3은 채택되었다. 한편, 통

표 5.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

구분	경로	b(β)	S.E.	t - value	가설
H1	고양동기	.084(0.194)	.046	1.826	기각
H2	대처동기	<b>.103(0.232)</b>	<b>.047</b>	<b>2.192*</b>	채택
H3	사교동기	<b>.119(0.248)</b>	<b>.036</b>	<b>3.293***</b>	채택
통제	스트레스	-.016(-.032)	.037	-.425	
변수	음주통제	-.107(-.247)	.034	-3.106**	

CMIN/DF=2.558, TLI=.894, CFI=.908, RMSEA=.077

\* $p < .05$ , \*\* $p < .01$ , \*\*\* $p < .001$

제변수인 스트레스는 음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032$ ,  $t = -.425$ ), 음주통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beta = -.247$ ,  $t = -3.106^{**}$ ).

소비의 개념을 포함한 음주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 분석결과 사교동기가 음주참여를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동기 또한 음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양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식도락 추구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식도락 추구를 K평균군집화기법을 통해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식도락 상 집단은 143명( $M = 6.57$ ,  $SD = .42$ ), 하 집단은 118명( $M = 4.77$ ,  $SD = .84$ )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에서 두 그룹을 모두 포함한 모형은 적절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중첩모형(nested model) 비교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때, 조절효과 분석(집단 간 비교)에서 다중 경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경로마다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을 비교하여야 하므로(이학식, 임지훈, 2008), 식도락 추구 집단 분류에 따라 음주동기 3개 요인에 대해 각각 자유모형과 통제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식도락 추구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위의 <표 6>과 같다. 먼저 고양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는 식도락 추구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MIN(1) = 9.995$ ,  $p < .002$ ), H4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대처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도 식도락 추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MIN(1) = 7.922$ ,  $p < .005$ ), 식도락 하집단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H5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사교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CMIN(1) = .145$ ,  $p > .05$ ), H6은 기각되었다. 집단 별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도락 상 집단의 경우 고양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beta = .621$ ,  $t = 3.033^{***}$ ), 식도락 상 집단에서는 고양동기가 음주참여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처( $\beta = .002$ ,  $t = 0.041$ ), 사교동기( $\beta = .077$ ,  $t = 1.122$ )는 음주참여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도락 하 집단에서는 대처동기가 음주참여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643$ ,  $t = 3.291^{**}$ ), 사교동기 또한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의미한 예측력을

표 6. 음주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 식도락 추구의 조절효과

		식도락 상		식도락 하		모델 비교(통제-자유)			가설검증
		b(β)	t-value	β	t-value	DF	CMIN	P	
H4	고양동기 → 음주참여	<b>.223(0.621)</b>	<b>3.033**</b>	-.236(-.434)	-1.904	1	9.995	.002	채택
H5	대처동기 → 음주참여	.002(.006)	0.041	<b>.368(.643)</b>	<b>3.291**</b>	1	8.891	.002	기각
H6	사교동기 → 음주참여	.077(.180)	1.122	<b>.177(.295)</b>	<b>2.235*</b>	1	.885	.347	기각
통제	스트레스 → 음주참여	.007(.018)	0.169	-.021(-.03)	-0.322				
	음주통제 → 음주참여	-.038(-.107)	-0.98	-.187(-.325)	-3.182**				

\* $p < .05$ , \*\* $p < .01$ , \*\*\* $p < .001$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95, t=2.235^*$ ). 반면에 고양동기는 유의미한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34, t=-1.904$ ). 한편, 스트레스는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beta=.018, t=.169$ ; 하:  $\beta=-.021, t=-.322$ ). 그러나 음주통제의 경우 식도락 상 집단에서는 음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beta=-.107, t=-.98$ ), 식도락 하 집단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25, t=-3.182^{**}$ ).

〈그림 2〉, 〈그림 3〉, 〈그림4〉는 각각 음주동기 식도락 추구 집단별 음주참여 누적합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분석과 관련하여 식도락 상 집단이 식도락 하 집단에 비해 음주동기가 높아질수록 기울기가 높은 경향을 보여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식도락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고양동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래프 기울기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에서는 식도락 하 집단이 상 집단에 비해 대처동기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두 집단 간 영향력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에서는 두 집단의 그래프 기울기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미에 대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처동기, 사교동기는 음주참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 사교동기는 음주빈도, 음주량뿐만 아니라 소비의 개념을 포함하더라도 음주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주가 쾌락적 소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대처동기와 사교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음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경민, 이민규(2005)의 연구에서 대처동기가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치며, 고양동기, 사교동기는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또한, 김대수, 이재훈(2013)의 연구에서 4가지 음주동기가 음주행위(음주빈도, 음주량, 폭음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부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음주빈도, 음주량(알콜 소비), 음주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참여 요인을 종속변수로 구성함에 따라 선행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 검토한 스트레스는 음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규(1993)의 스트레스가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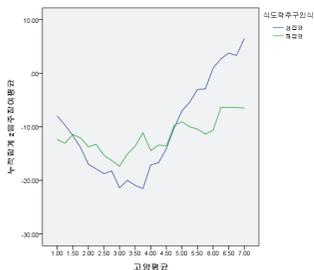


그림 2. 고양동기 케이스집단별 음주참여 누적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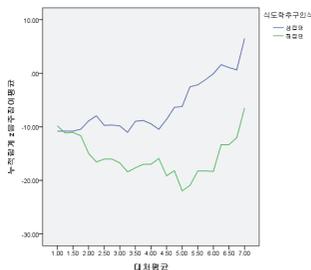


그림 3. 대처동기 케이스집단별 음주참여 누적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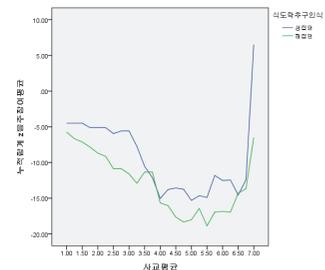


그림 4. 사교동기 케이스집단별 음주참여 누적합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박경민, 이민규(200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직접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음주통제는 음주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uchting, Lac & LaBrie(2008)의 음주통제가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도락 추구는 고양동기와 음주참여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동기는 식도락 추구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소비의 개념을 포함한 음주참여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도락 추구가 고양동기를 바탕으로 음주참여, 음주량, 음주소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처동기와 사교동기에서는 음주참여와의 관계에서 식도락 추구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식도락이 높을수록 고양동기를 바탕으로 음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대처와 사교동기는 음주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음주동기와 외식동기의 관련성으로 인해 식도락 추구가 음주동기와 함께 음주참여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식도락 추구에 따라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도락 상 집단의 경우 고양동기가 음주참여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도락 하 집단은 대처동기의 예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도락 추구가 높을수록 음식의 맛과 함께 행복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강하며, 식도락 추구가 낮을수록 음식의 맛 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와 기분전환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클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Csikszentmihalyi(1990)의 쾌락적 행동 예측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

기에 비해 강한 예측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사교동기는 식도락 추구 하 집단에서만 음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도락 추구가 낮을수록 대처동기 다음으로 사회적 결속이나 통합을 위해 음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가로서 음주소비가 쾌락적 소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음주참여 요인에 소비의 개념을 포함하여 음주참여로 개념화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개념을 활용하여 음주동기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술이 음식과 함께 향유된다는 점과 술도 음식이라는 점에서 식도락 추구가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음주동기 요인인 대처동기, 사교동기는 음주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소비의 관점을 포함하더라도 음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통이나 결속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음주참여를 강하게 지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고자 하는 음주동기 또한 음주참여를 상승시키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식도락 추구는 음주동기 요인인 고양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도락 추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양 추구를 위해 음주에 참여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대처동기에서는 식도락 추구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 음주에 참여하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식도락 추구는 음주동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음주참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참여에 쾌락적 소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예측하는 음주동기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음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스트레스와 음주통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음주통제 변수를 통제하고, 음주참여 변수에 소비의 개념을 추가하더라도 대처동기와 사고동기가 음주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이론적, 개념적 추론을 통해 음주가 외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음주 상황에서 술과 음식이 함께 한다는 개념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식도락 추구가 음주동기와 음주참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식도락 추구에 따라 음주참여 동기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음주참여자의 음주참여 욕구에 음식을 먹는 즐거움 욕구가 함께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주참여자는 행복지향 측면의 외식, 쾌락적 소비, 음주동기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참여를 추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나아가 여가의 관점에서 음주참여는 쾌락적 소비에 대한 기대와 만족, 음식 맛의 추구, 다양한 음주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와 30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40대와 50대도 음주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음주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탐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음주동기가 소비의 개념을 포함한 음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에 개입되

는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식도락 추구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수의 요인들이 충돌하거나 중복되어, 일부 문항을 제외하여 선행연구의 요인 및 문항 구조를 일부 변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종속변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원 데이터의 의미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음식 문화 전반에서 외식과 음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탐구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음주참여가 실제로 현대인의 여가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회*, 15(2), 653-668.
- 김대수, & 이재훈. (2013). 직장인의 음주규범 및 태도와 음주행위 간의 관계.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4.
- 김미영, 박정범, & 손애리. (2012). 피부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3(1), 133-141.
- 김종운. (2007). 음주예방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음주거절 효능감과 음주결과 기대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1), 115-130.
- 김홍범 & 허창. (1998). 고객의 외식동기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차이: 외국 체인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2), 205-221.
- 대한보건협회. (2016). 음주관련 통계시스템. 방문일 2018년 4월 26일: <http://stat.kpha.or.kr/>
- 류정월. (2010). 조선 초기 양반의 술 문화—조선 초기 잡록의 술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 동방학, 19, 335-364.
- 박경민, &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3.
- 오재환. (2002). 한국인의 여가와 음주문화. *사회연구*, 4, 67-94.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1), 165-179.
- 이학식 &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 여가문화연구회. (1997).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 송성인. (2017).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맥주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7), 229-241.
- 신행우. (1999). 음주동기와 음주문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1), 93-109.
- 신행우 &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77-92.
- 송성인. (2017).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맥주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7), 229-241.
- 조문수. (2003). *외식문화론*. 대왕사. p, 25-27.
- 조문수, 이성은 & 이영란. (2008). 외식제약, 외식 동기, 외식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론 구조모델 개발과 관계 탐색. *관광학연구*, 32(5), 31-53.
- 최상진, 김기범, & 최정인. (2003). 한국문화에서의 여가의 의미. *여가학연구*, 1(2), 33-42.
- 최창호, & 유연우. (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19(1), 161-177.
- Batra, R., & Ahtola, O. T. (1991). Measuring the hedonic and utilitarian sources of consumer attitudes. *Marketing letters*, 2(2), 159-170.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hurchill Jr, G. A., & Surprenant, C. (1982).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91-504.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5-396.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2), 123-132.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
- Cox, W.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168-180.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Farber, P. D., Khavari, K. A., & Douglas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6), 780-781.
- Featherstone, M. (1990). Perspectives on consumer culture. *Sociology*, 24(1), 5-22.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5, No. 3, pp.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irschman, E. C., & Holbrook, M. B. (1982). Hedonic consumption: Emerging concepts, methods, and propositions. *Journal of Marketing*, 46, 92-101.
- Huchting, K., Lac, A., & LaBrie, J. W. (2008).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Sorority Alcohol Consumption. *Addictive Behaviors*, 33, 538-551.
- Kunz, J. L. (1997). Drink and be active? The associations between drinking and participation in sports. *Addiction Research*, 5(6), 439-450.
- Mandelbaum, D. G. (1965). Alcohol and culture. *Current Anthropology*, 6(3), 281-293.
- Norman, D. A. (2004). *Emotional design*. New York: Perseus.
- Raymore, L. A. (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 White, H. R., & Labouvie, E. W. (1989). Towards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1), 30-37.
- Wilson, T. D., & Klaaren, K. J. (1992). Expectation whirls me round: The role of affective expectations on affective experienc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31.
- Sulkunen, P. (2002).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toxication in cultural studies of alcohol and drug use. *Contemporary Drug Problems*, 29(2), 253-276.